

유기농
과일무
저장양파
마늘
김장
합양
고추

키워드로 살펴본 농산물 트렌드 분석

김상효, 강소라 | KREI 농식품시스템연구부

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체하는 「2021년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농식품과 관련한 이슈를 분석하고 웹진으로 발간하고 있음.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본 웹진에서는 소비자의 능동적이고 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네이버(Naver) 데이터랩의 「쇼핑인사이트」 분야 통계 자료를 분석함.

네이버 데이터랩의 분야별, 기간별, 성별, 연령대별 인기검색어 상위 500위까지의 정보를 웹 크롤링(웹상에 존재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법)을 통해 수집함.

분석대상은 양파, 마늘, 무, 배추, 고추의 5개 농산물 채소 품목이며, 연도별, 월별 검색어 차이를 중심으로 단위, 형태, 특정 생산지 등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2021년 농산물 채소의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함.

종합의견

- 네이버 인기검색어를 통해 5가지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류, 형태, 단위, 특정 생산지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알 수 있었으며, 기존 통계 자료만으로 소비 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없던 점을 보완할 수 있었음. 특히 소비자의 정성적 질적 이슈를 잘 반영하였으며, 가격에 관심이 많은 시기와 2021년 새로운 관심 품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함.

[양파]

- 2021년 라이징 스타 : 양대파, 수입양파, 저장양파
- 관심을 두는 양파 구매 단위가 작아지고 있음
- 모든 연령층의 인기 검색어 '샐러드', 특히 젊은 층이 검색
- '양파가격' 검색량이 많은 시기 : 5~7월

[마늘]

- 특정 기간의 인기 마늘 : 4~5월 마늘짙, 3월 풋마늘
- 홍산마늘종자 : 첫 국산마늘종자(2020.08) 보도 증가
- 코로나19 이후 '마늘가격' 관심 증가 시기 : 5~8월

[무]

- 2019년 '수박무' 인기, 2021년 '과일무' 인기 상승
- 무 단위 관련 높은 검색어 : 10kg → 5kg → 20kg
- 코로나19 이후 서양 무인 '레디쉬' 와 무농약 '제주월동무' 검색량 증가
- '무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비슷한 추이

[배추]

- 2021년 배추 대량 단위의 검색어 비중이 줄어들
- 소비자의 구입 장소의 변화 관찰 : 푸드원도산지직송(2018), 안산팜(2018, 2019), 농협하나로마트절임배추(2020, 2021)
- 김장을 앞둔 9월~12월은 '배추가격' 검색량 증가

[고추]

- 매년 청양고추 인기, 코로나19 이후 '장아찌용 고추' 순위 상승
- '할라피뇨 고추' 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관심
- '고추가격' 은 8월~12월 관심 증가, 청양고추의 가격 검색 순위 흐름과 소비자물가지수의 오르는 패턴이 비슷

상위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양파 검색어는 ‘무안양파’와 ‘양파 10kg’, 반면 ‘함양양파’, ‘양파 15kg’은 순위 하락

- 무안양파는 2018년 3위, 2019년 2위에서 2020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5위로 검색 순위가 하락함. 반면, 함양양파는 2020년 처음으로 20위권 내로 진입하여 2021년 17위로 상승함. 또한, 무안양파의 검색순위가 낮아지면서 무안양파 가격의 검색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양파 10kg은 2018년과 2019년 4위, 2020년 3위, 2021년 2위로 점차 검색어 순위가 상승함. 양파 15kg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21년 13위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양파 20kg은 2018년 8위에서 2020년과 2021년 11위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관심을 두는 양파 구매 단위가 작아지고 있는 것을 시사함.

[표1. ‘양파’ 관련 연도별 검색어 상위 15위]

	2018	2019	2020	2021
1	양파	양파	양파	양파
2	자색양파	무안양파	햇양파	양파10kg
3	무안양파	자색양파	양파10kg	자색양파
4	양파10kg	양파10kg	양파5kg	햇양파
5	햇양파	양파가격	무안양파	무안양파
6	양파가격	햇양파	자색양파	양파5kg
7	적양파	간양파	간양파	샬롯
8	양파20kg	샬롯	양파가격	양파가격
9	양파5kg	양파20kg	적양파	양대파
10	간양파	양파5kg	유기농양파	간양파
11	유기농양파	적양파	양파20kg	양파20kg
12	무안양파가격	샬롯양파	양파3kg	적양파
13	자색양파가격	무안양파가격	양파15kg	양파15kg
14	냉동양파	미니양파	무안햇양파	유기농양파
15	샬롯	유기농양파	샬롯	양파3kg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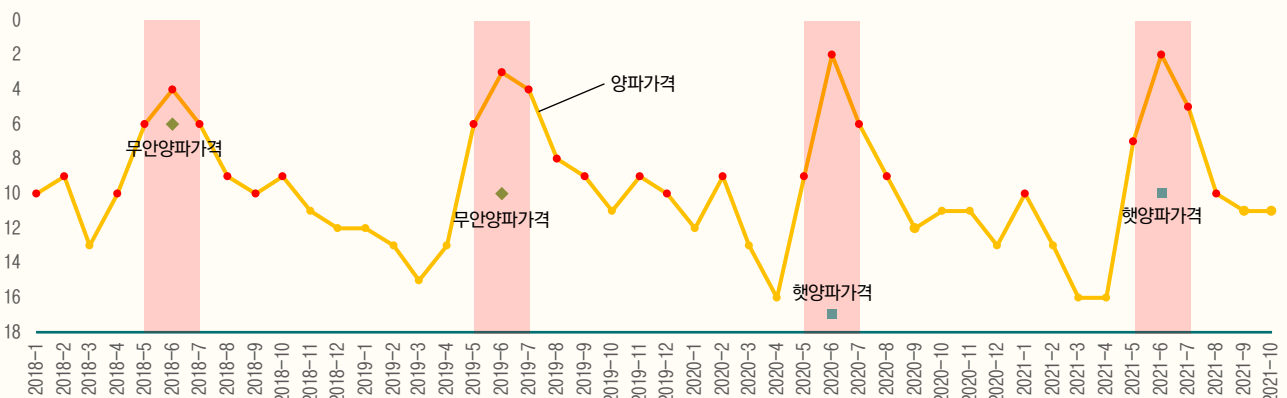
2021년 새롭게 떠오르는 양파 검색어는 ‘양대파’, ‘수입양파’, ‘저장양파’이며, 젊은 층일수록 ‘샬롯’ 높은 검색 순위

- 양대파는 검색어 500순위 밖에서 2021년 9위로 상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하고 고급화된 제품의 검색량이 많음.
- 수입양파는 2020년 83위에서 2021년 30위까지 올라와 지난해 대비 양파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한 국내 시장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2019년 이후로 저장양파의 검색 순위가 29위에서 20위까지 올라와 저장양파의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단맛이 강한 양파인 샬롯은 2021년 모든 연령층에서 10위권 내 존재하며, 특히 10대에서는 1위를 점하고 젊을수록 높은 순위를 차지함.

양파 출하시기인 5월~7월은 ‘양파가격’ 높은 순위 차지, 6월의 상위 세부품목은 코로나19 이전 ‘무안양파가격’, 코로나19 이후 ‘햇양파가격’

- 5월~7월은 양파의 출하 시기로 한 해동안 ‘양파가격’의 검색순위가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과 일치함. 특히, 검색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6월로 2018년 4위, 2019년 3위, 2020년과 2021년 2위를 기록하여 유난히 검색어 상위권을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음.
- 양파종류 중 2018년과 2019년 6월 기준으로 ‘무안양파가격’,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햇양파가격’의 검색어 순위가 높았음.
 - 햇양파가격 : (2020.6) 17위 → (2021.6)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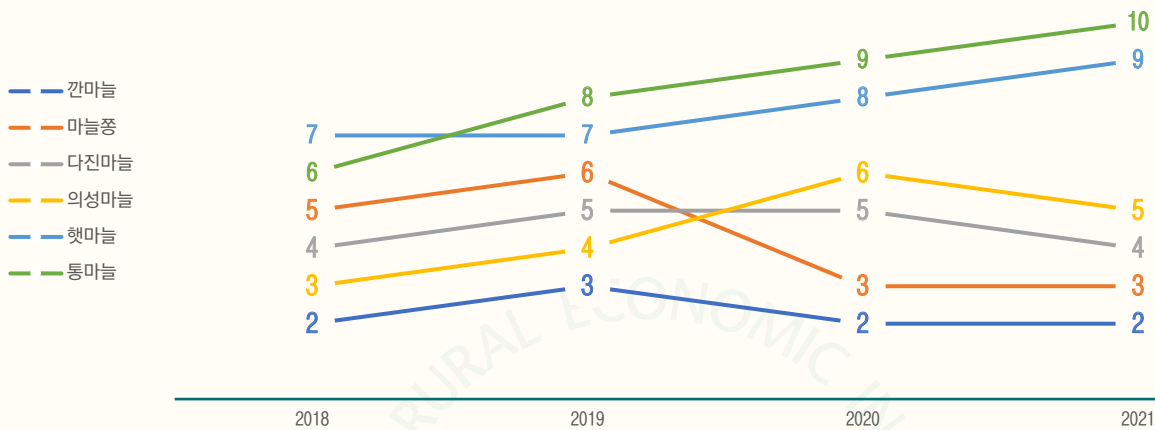
[그림1. 양파가격 관련 월별 검색어 순위(2018~2021)]



주: 무안양파가격, 햇양파가격 등 가격과 관련한 검색어를 모두 양파가격으로 보았고 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의미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매년 1~10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깐마늘’, ‘마늘쫑’, ‘다진마늘’, ‘의성마늘’, ‘햇마늘’, ‘통마늘’, 3월은 ‘풋마늘’, 4월·5월은 ‘마늘쫑’이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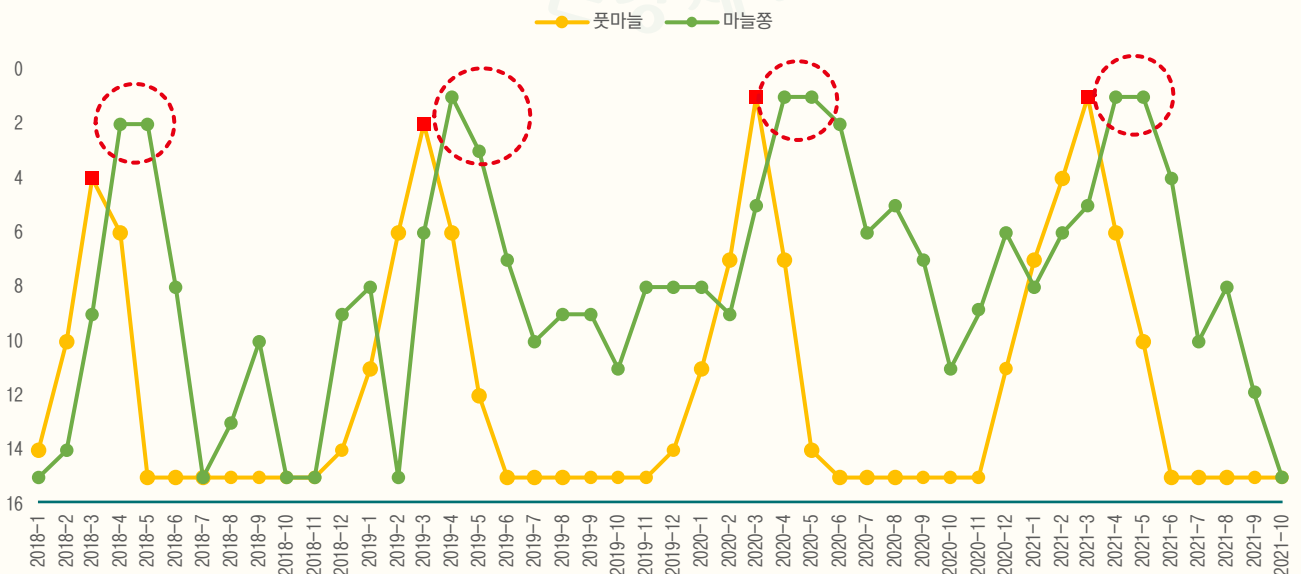
[그림2. ‘마늘’ 관련 연도별 검색어 상위 10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

- 4월, 5월마다 마늘쫑의 검색순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18년 2위, 2019년 1위·3위, 2020년과 2021년 1위를 차지함. 풋마늘의 경우, 12월부터 검색순위가 눈에 띄게 오르다가 3월에 한 해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함.

[그림3. ‘풋마늘’ 과 ‘마늘쫑’ 월별 검색어 상위 15위(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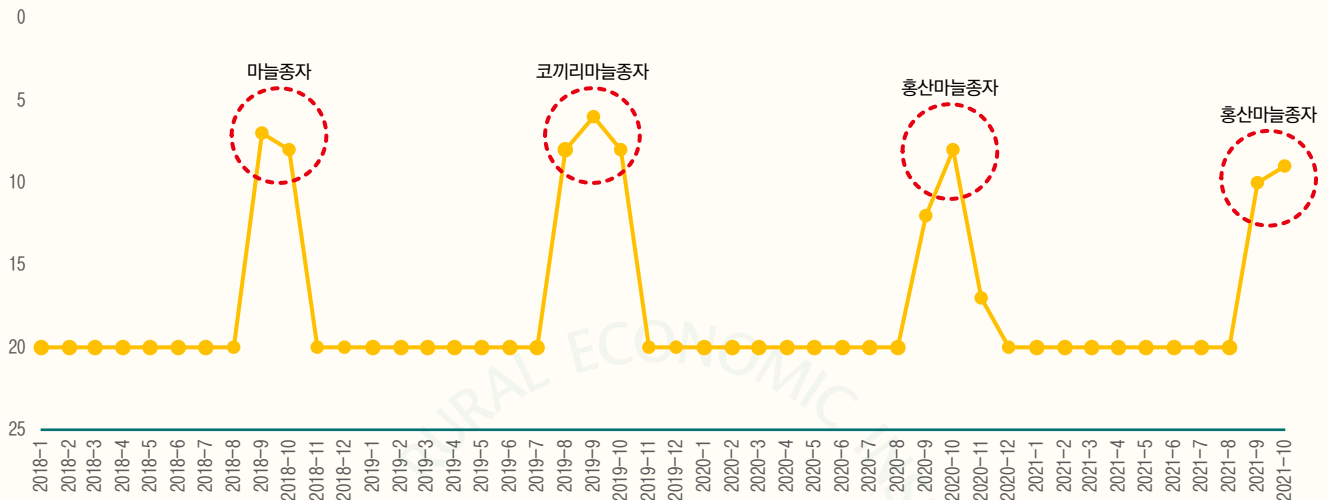


주: 검색순위 15위 밖의 경우 모두 15위로 계산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9~10월 마늘종자 상위 10위권 진입, 2020년 8월 첫 국산마늘종자인 '홍산마늘종자'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져

- 언론에서 '홍산마늘종자' 보도가 증가

[그림4. '마늘종자' 관련 월별 검색어 상위 20위(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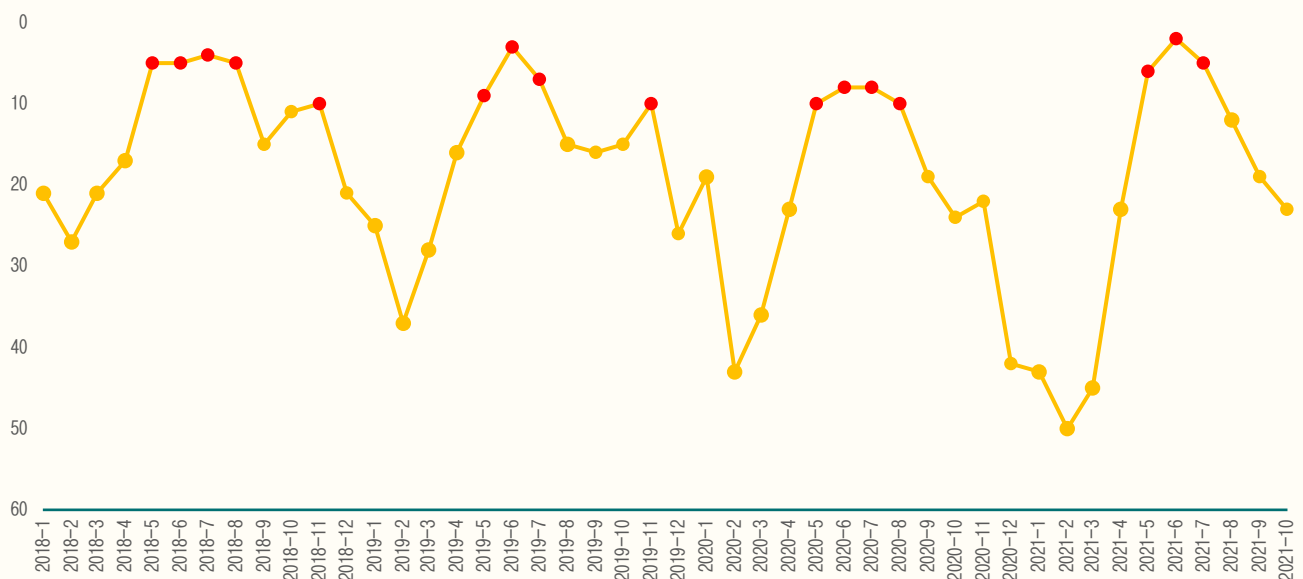


주: 검색순위 20위 밖의 경우 모두 20위로 계산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코로나19 이후 상위 15위 내 '마늘가격' 검색 기간이 5월~8월로 줄어들어

- '마늘가격' 중 2021년 6월 검색어 '마늘한접(10kg)가격'은 2위를 차지하여 전년(8위) 대비 검색량이 늘었음.

[그림5. '마늘가격' 관련 월별 검색어 순위(2018~2021)]



주: 의성마늘가격, 마늘한접가격 등 가격과 관련한 검색어를 모두 마늘가격으로 보았고 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의미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알타리무’와 ‘총각무’ 꾸준한 인기검색어, 2019년 ‘수박무’ 관심 끝난 줄 알았으나 2021년 ‘과일무’ 인기 급상승

- 매월 ‘알타리무’는 부동의 검색어 1위였으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동안에는 ‘수박무’가 1위 자리를 탈환함. 동기간 2순위는 ‘수박무파는 곳’으로 수확 시기와 맞물려 단맛과 건강한 효능을 모두 잡는 ‘수박무’ 관련 보도 증가로 검색량도 많았음.

[표2. ‘무’ 관련 연도별 검색어 상위 10위]

	2018	2019	2020	2021
1	알타리	알타리	알타리무	알타리무
2	무	수박무	무	알타리
3	알타리무	무	알타리	무
4	무우	알타리무	무우	초롱무
5	총각무	총각무	총각무	총각무
6	보라색무우	수박무파는 곳	초롱무	무우
7	무우가격	무우	제주무	순무
8	보라색무	수박무우	방울무	제주무
9	알타리가격	다발무	다발무	과일무
10	다발무	김장무	순무	김장무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

10월~12월은 ‘다발무’ 관심, 코로나19와 상관없이 10kg, 5kg, 20kg순의 검색량

- 10월~12월에는 대체로 ‘다발무’가 상위권으로 올라와 김장철 다발무의 수요 증가가 반영됨. 단위 관련하여 코로나19와 상관없이 10kg, 5kg, 20kg 순으로 높은 검색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박스로 구입하는 경우 1박스를 주로 검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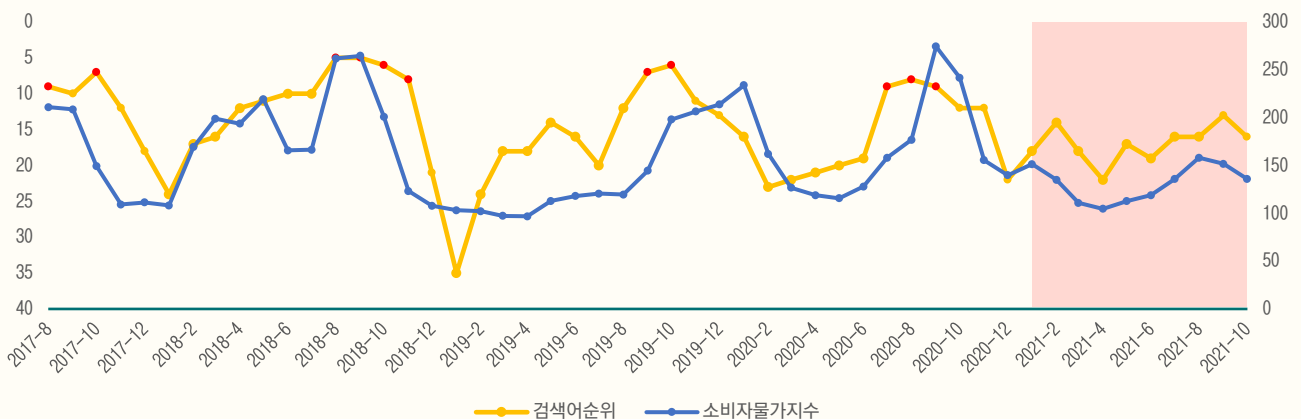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레디쉬’와 ‘제주월동무’ 검색량 증가한 반면 ‘동치미무’는 검색 순위 하락

- 2020년 이후로 서양 무인 ‘레디쉬’가 검색어 상위 20위 내에 다수 발견되었으며, 건강에 관심이 많고 다양화와 고급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제주월동무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20순위 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나, 코로나19 발병 이후 1, 2분기에는 검색어 20위권 내로 올라오기 시작함. 반면, 4분기 인기 농산물인 ‘동치미무’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순위 밖으로 밀려남.

2021년 ‘무가격’ 검색이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안정적인 수준, 소비자 체감 물가와 비슷한 추이

- 2021년에는 ‘무가격’ 관련 검색어가 순위 13~20위에서 다른 연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타나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가격에 덜 민감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검색어 순위 변동과 소비자물가지수가 비슷한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 반응하는 행동을 잘 반영됨.

[그림6. 월별 ‘무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와 ‘무’의 소비자물가지수(2017.8~2021.10)]



주: 알타리배추가격, 무우가격 등 가격과 관련한 검색어를 모두 무가격으로 보았고 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의미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무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사계절 동안 가장 주목받는 배추는 ‘알배추’/‘알배기배추’, 봄동배추 수확시기(1~3월)에는 ‘봄동배추’가 ‘알배추’보다 높은 순위 차지

- 매년 ‘알배추’ 는 상위 10위권 내에 머물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배추는 얼갈이배추이었음. 2018년과 2021년 1~3월은 ‘봄동배추’ 가 알배추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여 더 큰 관심을 모았으며, 그 중 ‘진도봄동’ 이 유명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배추 대량 단위의 검색어 비중이 줄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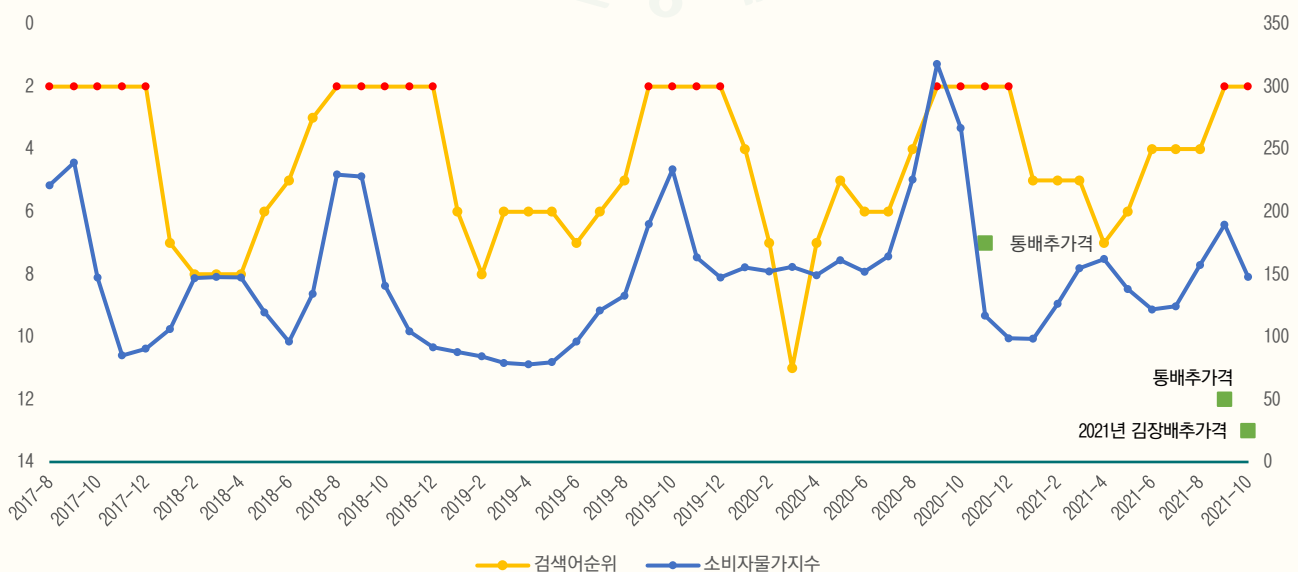
- 주로 관심을 보이는 배추 단위는 대부분 ‘포기 배추’ 나 ‘배추 1망’ 으로 30위권 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배추 1포기’ 의 검색어가 매년 많았음. ‘배추 3포기’ (보통 배추 1망)도 종종 보였으나 2021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 더불어, ‘배추 3포기’ 나 ‘배추 3망’ 보다 ‘배추 1포기’ 나 ‘배추 1망’ 의 검색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푸드윈도산지직송(2018), 안산팜(2018, 2019), 농협하나로마트절임배추(2020, 2021)의 검색어를 통해 배추의 인기 구입 장소의 변화를 보여줌.

김장 앞두고 ‘배추가격’ 검색 순위 상승, 매월 9월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최고치 달성

- 2017년과 2018년에는 8월~12월, 2019년부터 2021년 동안은 9월~12월에 ‘배추가격’ 이 검색어 상위 2위를 차지하여 김장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보여짐. - 특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배추 물가지수와 대체로 비슷한 변동 추세를 보였으며, 매년 9월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최고치를 기록함.
- 다른 시기에 비해 특정 배추 종류 가격의 검색어가 상위권에 들기도 함. 예를 들어, 2020년 11월과 2019년 9월에는 ‘통배추가격’ 이 각각 7위, 12위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2021년 김장배추가격’ 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림7. 월별 ‘배추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와 ‘배추’ 의 소비자물가지수(2017.08~2021.10)]



주: 통배추가격, 쌈배추가격 등 가격과 관련한 검색어를 모두 배추가격으로 보았고 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의미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배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2021년은 햇고추와 건고추 가격에 관심이 많음. ‘홍고추’의 검색 순위는 상승중인 반면, ‘베트남 고추’ 전년 대비 검색순위 하락

[표3. ‘고추’ 관련 연도별 검색어 상위 10위]

	2018	2019	2020	2021
1	건고추	미인꽃고추	청양고추	청양고추
2	청양고추	청양고추	건고추	건고추
3	2018년고추가격	미인꽃고추파는곳	고추	고추
4	2018년건고추가격	미인고추	할라피뇨고추	햇고추가격
5	고추	건고추	베트남고추	홍고추
6	베트남고추	베트남고추	미인고추	할라피뇨고추
7	2018년고추가격	고추	홍고추	건고추가격
8	홍고추	홍고추	풋고추	베트남고추
9	홍고추가격	홍고추가격	마른고추가격	2021건고추가격
10	당조고추	미인고추파는곳	당조고추	홍고추가격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

매년 1등 주요 품목은 청양고추이며, 코로나19 이후에 검색어 ‘장아찌용 고추’가 상위 10위권 반열에 들어와 전년 대비 순위 상승

- 매년 청양고추는 대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해와 달리 2017년 8월~11월은 건고추가 청양고추보다 더 높은 검색 순위임. 또한, 2019년 미인고추가 검색어 100위권에 처음으로 나타나 4월~7월에는 ‘미인꽃고추’, ‘미인꽃고추파는 곳’, ‘밀양미인꽃고추’, ‘미인고추’, ‘미인고추파는 곳’ 이 1위에서 4위까지 점령하는 특징을 보임.
- 코로나19 이후 장아찌용 고추가 1위에서 10위 사이의 인기검색어 반열에 올랐으며, 2020년 10월 9위에서 2021년 동월에는 7위로 올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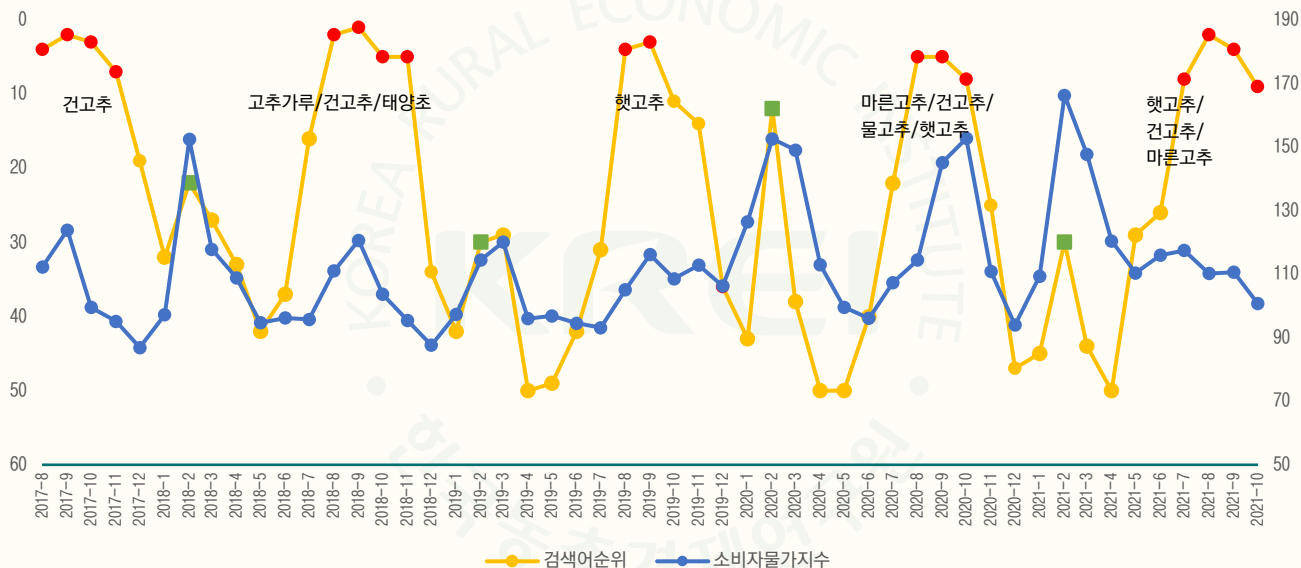
‘청양고추’ 10kg, ‘파리고추’ 4kg, ‘홍고추’ 10kg, ‘건고추’ 1kg이 인기 검색어, ‘할라피뇨 고추’는 여성에게 인기 많아

- 세부품종별로 주로 관심을 갖는 구입 단위를 유추할 수 있었음. 청양고추의 경우 10kg, 5kg, 2kg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파리고추의 경우 4kg, 1kg 순으로 높게 나타남. 홍고추는 10kg와 1kg, 건고추는 1kg이 인기 검색어로 나타남.
- 할라피뇨 고추의 경우, 여성은 매년 검색어 상위 10위권에 속하였지만 남성은 대부분 동범위 밖으로 나타나 여성의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고추가격’의 검색순위는 8월부터 12월 동안 상위 10위 내로 상승,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기간이 많았으나 매년 2월 고추가격(청양고추)의 검색 순위 흐름과 소비자물가지수의 오르는 경향이 비슷

- 2017년 고추검색순위를 보면, 건고추(2위), 2018년 고춧가루(1위) · 태양초(4위) · 건고추(5위)이었으며, 2019년에는 햇고추(4위), 2020년 마른고추(5위) · 물고추(7위) · 건고추(7위) · 햇고추(8위)로 나타남. 이어서 2021년에는 햇고추(2위) · 건고추(3위) · 마른고추(9위)로 나타남.

[그림 8. 월별 ‘고추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와 ‘고추’의 소비자물가지수(2017.08~2021.10)]



주: 검색순위 50위 밖의 경우 모두 50위로 계산하였으며, 건고추가격, 물고추가격 등 가격과 관련한 검색어를 모두 고추가격으로 보았고 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의미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풋고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